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SIN: 신조선가 지수 125p, 중고선가 지수 87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5p(-1p, WoW), 중고선가 지수는 87p를 기록함. 현대중공업이 Knutsen OAS로부터 174,000CBM급 LNG선 2+2척을 수주했고 인도기한은 2023년이라고 보도됨. 대선조선은 Sea Pioneer Shipping으로부터 50,000DWT 급 PC선 2+2척을 수주했고 인도기한은 2022이라고 보도됨. (Clarksons)

### Eni deep-water exploration well on horizon in Mozambique as drillship sought

이탈리아의 Oil Major Eni가 약 2년간 지연됐던 모잠비크 Angoche 지역 시추 계획을 재개한다고 보도됨. Eni는 2022년 초 본격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시추작업에 투입될 6세대 Drillship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에 문의 중이라고 보도됨. 또한 2010년 이후에 건조된 Drillship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도됨. (Upstream)

### Modest increase bumps US rig count to 300

미국 내 rig수가 전주대비 4기 증가한 300기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됨. 여전히 전년 동 기간 684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지만 8주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됨. Baker Hughes에 따르면 oil rig는 226기이며 전주대비 5기 증가했다고 보도됨. (Upstream)

### 나이지리아 해운사 'NLNG', LNG선 8척 도입 추진...삼성중공업 '물망'

나이지리아 LNG 생산기업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NLNG)가 신규 LNG 운반선을 신조 발주를 추진하는데 삼성중공업이 강력 후보군이라고 보도됨. 삼성중공업은 NLNG 해운 자회사 보니 가스 트랜스포트(BGT)이 LNG 운반선 도입을 검토하는데 건조사로 거론되고 있으며, 도입 선대 규모는 최소 6척에서 최대 8척이라고 보도됨. NLNG의 증설에 필요한 LNG운반선으로 오는 2025년 착공 예정인 액화트레인 7호기(Train7) 사업 관련 선단 교체 목적으로 신조 발주가 추진된다고 보도됨. (더그루)

### 두산중공업, 국내 첫 수소액화플랜트 건설 계약

두산중공업은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산업진흥원, BNK경남은행,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창원수소액화사업 EPC 계약 및 투자확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힘. 이번 계약을 통해, 두산중공업은 수소액화 플랜트를 EPC 방식으로 건설하고 향후 20년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계약 금액은 약 1,200억원 규모라고 보도됨. 이 플랜트는 하루 5톤의 액화수소 생산을 목표로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산중공업 창원공장 내 부지에 2022년까지 준공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파이낸셜뉴스)

### DICC 빛 떠앗기 포기한 두산중...두산인프라코어 본입찰서 KDBI 승기 잡나

8일 재계와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의 대주주인 두산중공업은 최근 예비입찰에 참여한 원매자들을 대상으로 DICC 우발부채 해결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됨. 현재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 관련 재무적투자자(FI)들과 소송을 진행중이며 패소할 경우 두산인프라코어는 FI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1조원 규모의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알려짐. (아주경제)